

AI 전파확산 방지를 위한 구서요령

▶ 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

1. 구서의 필요성 및 일반 현황

▣ 쥐는 사료섭취, 시설물 훼손,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유발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 AI바이러스 등 전파 매개체 역할

- 쥐는 주로 밤에 활동하면서 분변, 오줌, 타액, 혈액을 통해 병원체를 퍼뜨리거나, 몸, 꼬리, 털에 바이러스, 세균 등 묻혀서 전파
- 농장에서 쥐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질병 차단이 불가능

* 쥐는 자기 몸무게의 10~20%를 먹어 치우는 대식가로 1,000마리가 소비하는 사료량은 하루에 40kg 정도이

〈국내 서식하는 쥐의 특성〉

구분	시궁쥐, 곰쥐	생쥐	등줄쥐
임신 기간	21~23일	18~21일	21~23일
산자수	6~12마리	4~12마리	4~9마리
출산 횟수	3~6회/1년	5~6회	4~5회
생체중	299~400g	20~40g	35~55g

〈쥐의 서식 밀도 추정 방법〉

관찰밀도	추정 마리수
쥐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됨	0~400마리
밤에 가끔 보임	100~500마리
낮에 가끔 보이며 밤에 자주 보임	400~1,000마리
낮에도 자주 보임	5,000마리 이상

* 자료출처 : 미국 미시시피 주립대 출판사 도서(Robert L. Haynes 박사 저, 1981)

며, 연간 사료 손실량이 10여 톤에 이릅니다.

- * 농장에 주로 서식하는 쥐는 시궁쥐와 곰쥐, 1~3년간 생존, 1년에 4~6복 출산하는데 복당 6~12마리 생산, 암수 한 쌍이 연간 460마리까지 생산 가능

2. 구서요령

▣ 일반적인 구서 수칙

- 쥐는 은밀한 곳에 서식하고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정기적인 구서작업을 통해 개체수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
- 쥐의 침입을 막기 위해 농장 주변의 쓰레기 더미, 수풀 등 위생적으로 주변 환경을 정비
- 축사, 농장 주변담장의 틈새를 시멘트, 철망, 금속판 등 내구성 있는 재료로 막아 쥐가 농장 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차단
- 미끼통을 쥐가 자주 출몰하는 곳에 설치하여 유인하고 주변에 살서제를 살포하여 구서작업 실시
- 2~3개월 동안 집중적인 구서작업으로 구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적어도 한 달에 1회 이상 점검 및 정기적 서식 여부 확인

▣ 발생 농장 구서방법

- 살처분이 끝났더라도 가급적 사료통(살서제 살포)을 그대로 놓아 감염되지 않은 타 농장으로 쥐가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
- 농장 울타리 밖, 축사 외부,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곳 등에 생석회를 뿌려 쥐가 외부로 이동하지 않도록 출입을 차단
- 대량의 살서제를 일제히 살포하고, 이후는 남아 있는 쥐가 구서되도록 쥐덫, 끈끈이 설치 등 구서작업 실시

* 구서는 살처분이 끝난 직후 실시, 쥐덫은 6~7m 일정 간격 유지하여 설치

▣ 방역대내 비발생 농장 구서방법

- 농장 울타리 밖, 축사 외부,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 등 쥐가 자주 드나드는 장소에 생석회를 뿌려 쥐의 접근을 차단
- 살서제를 놓거나, 출몰지역에 쥐덫, 독먹이 통 등 설치하여 구서작업 실시
 - * 닭, 오리가 출하된 직후 구서작업 실시

▣ 살서제의 활용

- 급성 살서제는 하수구, 도축장 같이 장기간 쥐약을 놓을 수 없는 장소에 일시에 구서 작업이 필요할 때 사용
 - * 사람이나 가축에 위험이 따르며, 쥐가 해당 약체에 극히 민감하게 기피하므로 구서율이 50% 이하로 효과가 떨어짐
- 만성 살서제는 내부 출혈로 인해 쥐가 서서히 죽게 되며, 쥐가 살서제를 독극물로 인지하지 못해 섭식한 쥐나 동료 쥐들이 계속적으로 살서제를 섭취
 - * 만성살서제는 급성 살서제보다 비교적 구서율이 90% 이상 높음
- (가루용 살서제 사용) 뿌리므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, 미끼 없이 먹을거리가 풍부한 환경에서 구서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
 - 쥐가 서식지에 돌아가 콧수염과 경계모, 발바닥에 묻은 오물을 혀로 핥아서 몸을 청결할 때 체표에 묻은 쥐약을 섭취하게 됨
- (독미끼 사용) 가루용 살서제 적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용되며, 미끼용 먹이에 살서제(독미끼)를 뿌려 사용
 - * 쥐약을 놓기 전에 섞은 먹이를 3~4일간 밀밥으로 놓아 미끼로 사용할 먹이에 미리 익숙해지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

축산차량 소독 요령

(거점소독시설, 사료환적장 등)

▶ 글 : 농림축산검역본부

1. 축산차량이 도착하면 차량을 소독장소로 유도하고 차량 운전자를 하차시킨다.
2. 차량의 외부 소독은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소독한다.
 - (차량 바퀴, 몸체) 분뇨, 흙 등 유기물이 있는 경우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세척·소독한다.
3. 차량 내부 소독은 소형 분무기로 하되, 운전자가 접촉하는 부위를 철저히 소독한다.
 - (발판) 차량에서 꺼내어 소독액이 완전히 젖도록 소독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소독액을 충분히 분무하여 흠뻑 젖도록 한다.
 - (차량 운전대, 좌석) 소독액을 충분히 분무하고 몇 분간 방치한 후 종이타올로 닦아낸다.
 - (운전자의 신발) 발판소독조에 담가 충분히 소독한다.
 - (적재된 축산관련 기구·장비) 고압분무기로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.
4. 소독 작업 후 '축산관련차량 소독장소 소독실시 기록부'에 기록하고 '소독필증'을 발급한다.